

경인년 새해 한민건강 KAHPA가 책임진다

존재만으로도 흐뭇해지는 사람이 있다. 에릭 서. 시애틀 지역에 한인 의료인 협회(KAHPA)를 최초 결성 의료인을 꿈꾸는 2세들에게 멘토 및 선임자로서 이름을 떨치던 그가 몇달 전 전격 한인 의료인 협회장이 되면서 앞으로 협회의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사 그 이상의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는 요즘 제2, 제3의 에릭 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여념이 없다. 진료로 분주한 닥터 서를 만났다.

에릭서를 말하는 흰색 가운

닥터 서는 의사로서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늘 낮은 곳을 볼 줄 아는 그는 사진 촬영을 위해 꼭 의사가운을 입어야 하는냐고 묻는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텍사스로 이주해 온 닥터 서는 텍사스 주립대에서 의대를 마치고 인턴쉽과 레지던트를 통해 가정의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모든 세대와 여러 분야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가정 주치의가 자신의 적성에 맞다며 권위 의식보다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특히 그는 자신의 환자를 각 분야의 전문의에게 보내야 하는 가정 주치의의 한계를 보강하고자 틈나는 대로 배우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본인의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에서 비롯 되었다며, 현재는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까지 도입하여 미용시술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얼마전 근처 한인 병원이 문을 닫자 삼삼오오 모여든 한인 환자들을 위해 현재는 리셉션리스트를 비롯한 전문 간호 의료인까지 도입하여 한인 환자 진료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제2의 한인 슈바이처를 위한 KAHPA 헌신

다른 사람들의 상황까지 배려하는 닥터 서는 이민자로서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를 잘 이해한다. 자신이 고생한 만큼 의사가 되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던 중 뜻이 맞는 동료의사들과 KAHPA(Korean-American Health Professional Association)를 결성하게 된다. 이민자로서 항상 바쁜 부모들 밑에서 의사를 꿈꾸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좌절하고 있는 꿈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물론 닥터 서도 기존 협회를 통해 편안한 의료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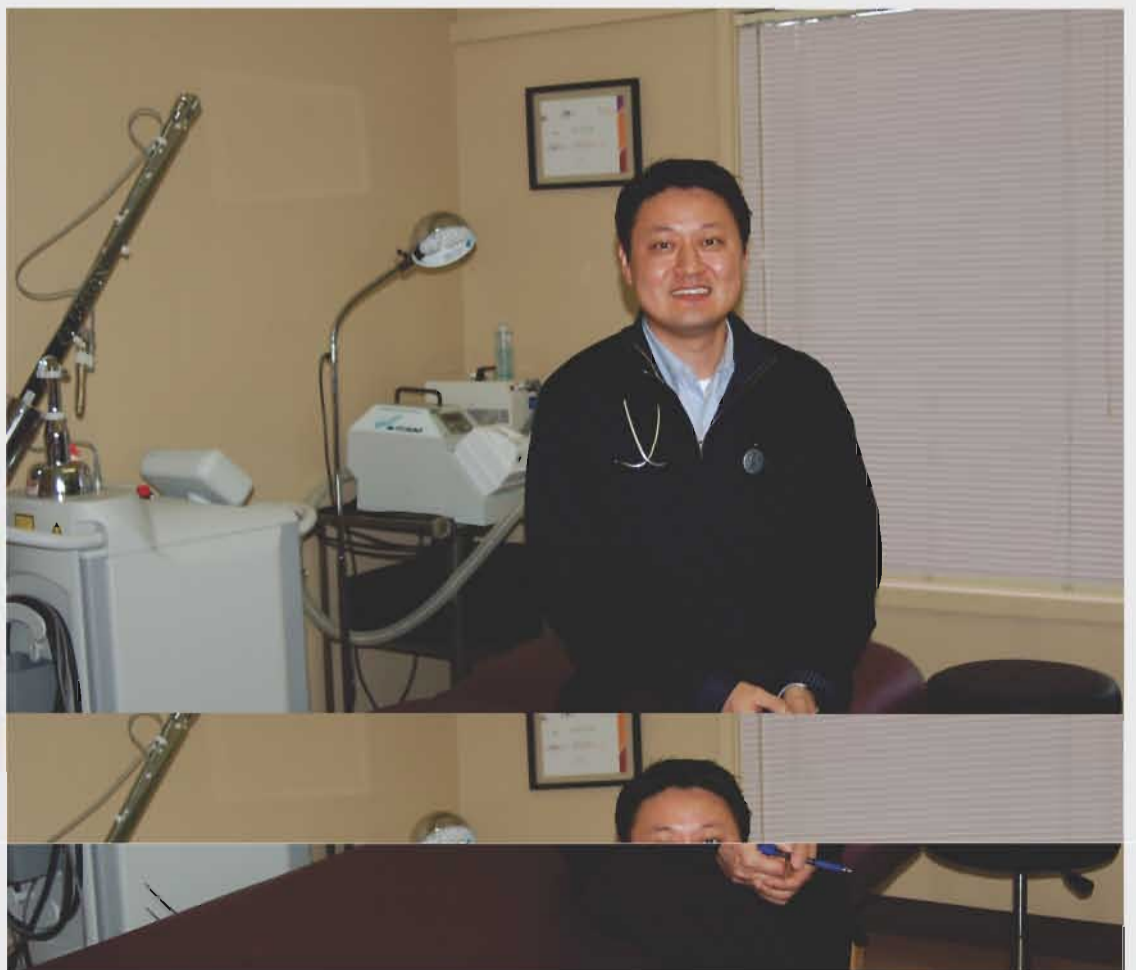
닥터 에릭 서 한인 의료인 협회 역량 강화

지만 현재만이 아닌 제2, 제3의 훌륭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그는 굳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였다. 지난 2006년 처음 구성된 KAHPA는 최초 20~30명의 의료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30여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시애틀 최대 규모 한인 의료인 협회가 되었다. KAHPA를 창시한 닥터 에릭 서는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2010년에 다시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좀 더 역량있는 협회를 만들고자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게 된다.

매년 봄, 가을 워싱턴 주립대, 시애틀대학 등 의과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기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의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현직 의사들을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병원 실습 및 일일 의사 체험까지 제공하고 있어 예비 의사들을 위한 특별한 교습의 장으로 평판이 좋다.

특히 금년 한국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한국의료홍보의원으로 발탁된 닥터 서는 앞으로 한국 병원과 연계를 통해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미국 현지의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시설을 환자들보다 먼저 파악하길 권유하고 싶었다. 특히 지혜를 모아 유망한 한인 의료인 협회가 되었다. KAHPA를 창시한 닥터 에릭 서는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2010년에 다시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좀 더 역량있는 협회를 만들고자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진있게 전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두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는 KAHPA는 의료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의 연대를 통해 환자가 전문의를 필요로할 경우 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인 전문의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어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닥터 서는 한인 1세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크고 강력한 협회를 구성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터 서는 인터뷰 내내 신종플루 백신을 맞지 못한 한인들을 걱정하고 있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냐고 하는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2월에 신종플루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아직 접

강만은 꼭 챙기겠다는 신념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KAHPA가 있어 2010년은 우리의 마음이 더 훈훈해질 것 같다.